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 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3)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ANNUAL REPORT 2015



CBAM
THE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WWW.CENTERFORBAM.COM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Annual Report 2015

TABLE OF CONTENTS

- i. 공동대표 인사
- ii. 2015-2016년 CBAM 사역 정리
- iii. 2016-2017년 사역 우선순위
- iv. 재정 정보
 - 2015년 정산
 - 2016년 예산

At a glance



Joshua
Business
School
(JBS)



Jubilee
Entrepreneur
School
(JES)



Christian
Resource
Network
(CRN)



MORE THAN
10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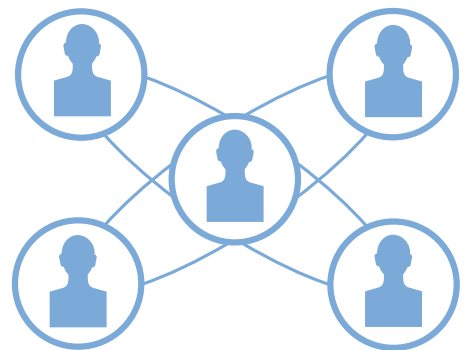
MORE THAN **100 PEOPLE**



MISSIONARY
38%



STUDENTS **56%**





I. CBAM 공동대표 인사

길었던 북미 동부의 겨울이 끝이 나고 봄기운의 약동하는 요즘,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의 분쟁, 파키스탄, 터키에서의 테러, 에쿠아도르와 일본에서의 지진 소식, 캐나다 북부의 산불소식을 듣는 올 한해, 주님께서 신실하심이 고통 당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살롬으로 임하길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Center for BAM (CBAM) 의 동역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은 함께 했으며, 저희들의 작은 몸짓이 살롬의 소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신비가 여전하셨음을 봅니다. 저희들이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모두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저희들이 200년 이후 십여년 동안 모여왔고, 같은 비전 안에서 꾸준히 같이 자라감입니다. 경제적 보상 없이 헌신하는 지체들을 보면 감사와 미안함이 교차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는 성령님의 신비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세웠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CBAM 의 정체성을 세워가며 이를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역교회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만을 교회의 표현으로 여기는 한국 기독교 문화 가운데 저희 센터 자체가 어떤 정체성을 갖는가는 저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모임이 질서를 잡아감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공동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협력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2015년8월 워싱턴 디씨에서 모였던 수련회와 2016년 2월 시카고 휘튼대학에서 모였던 스태프 모임은 이런 면에서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두 모임에서 저희들은 “교회를 돕는 교회 공동체” 로서, 정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4C 부터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기 전13C 까지, 전체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시켜주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수도원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서유럽지역에서 발달한 수도원 운동은 후대의 종교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변방을 개척하고 복음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예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의 심으
신 그 영광을 나
타낼 자라 일컬
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3



올해 2월 워튼대학에서 모였던 스태프 리트리얼. 작년부터 모이는 이 모임은 여름 Washington DC 에서 열리는 전체 BAmers 수련회와 함께 CBAM의 정기 오프라인 미팅이 되고 있습니다.

수 제자로서의 공동체 문화는, 수도원에서 지역교회로 흘러갔고 이는 전체 교회 공동체를 건 강하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정체성은, 어쩌면 이 시대의 지역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선교적으로 살도록 돕는 선교적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우리가 과거 수도원처럼 특정 장소나 건물 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어 동역하다는 점에서 저 희들의 공동적 정체성은 버추얼 수도원 Virtual Monastery 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버추얼 수도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즈니스 세계에 새로운 세대와 공동체를 세 우는 것입니다. "Raising a new generation in business world!" 우리는 10년전 모임 시작에 주셨던 이사야 61장에 기초한 이 비전을 기억합니다. 비즈니스의 제국 가운데 황무하였던 하나 님의 나라를 중수하고 새롭게 세우는 선교적 크리스찬들, 선교적 교회들을 돕는 버추얼 공동체 로 올 2016년 저희들의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2,000년전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 밤을 새며 소망 가운데 양치는 저희와 가운데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

2016년 5월 10일 서명구, 조샘 드림.

Raising a new generation
in business world!



II. 2015-2016년 CBAM 사역정리

CBAM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Joshua Business School (JBS)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현대의 도시, 비즈니스 문화 가운데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Jubilee Entrepreneur School (JES)는 복음이 필요한 문화권에서 비즈니스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1주일간 열리는 오프라인 창업학교입니다. Christian Resource Network (CRN)은 타문화권에서 운영하는 BAM 기업을 재능과 자원을 가진 분들과 연결하여 협력을 만들어가는 네트워킹 사역입니다.

2015년은 CBAM 전체의 정체성이 자리잡고 공동체성이 자리난 한해이지만, 동시에 각 팀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하고 팀워크를 다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Joshua
Business
School
(JBS)



Jubilee
Entrepreneur
School
(JES)



Christian
Resource
Network
(CRN)

비즈니스 세계 속의 선교적 삶을 온라인 교육을 돕는 JBS 팀은 2015년 동안 JBS 3.0 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2015년 상반기 약 50여명의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들, 교수, 실무자들의 도움으로 JBS에 대한 전면적인 리뷰를 하였고, 이에 기초해서 기존의 JBS 를 12주에 담고 내용을 간략하게 줄인 JBS 3.0 이 하반기에 개발되었습니다.

과거 JBS 2.0 의 경우, 전세계 10여개국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실제로 졸업하는 사람들은 30% 에 불과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한국에서의 수강생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일단 끝까지 졸업한 분들의 반응은 뜨겁고 실제로 삶에서의 변화에 대한 간증은 풍성하기에, 내용에서의 변화를 주는 것과 홍보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함은 분명했습니다.

2015년에는 JBS 2.0을 새롭게 수강하는 학생 수가 50여명이 불과했습니다. 이는, 3.0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새롭게 개발된 3.0은 2016년 현재,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10개 넘는 도시 100여명이 수강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하게 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계적인 프로모션이 부족했지만, 최근 JBS 의 팀원 보강으로 가을부터는 활발한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BAM 운동의 중심인 IBA 와 나우미션과의 동역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 지역교회와의 협력이 가을에는 더욱 왕성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년부터 의논되었던 follow-up 과 오프라인 세미나의 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follow-up의 경우에는, 온라인 공간 가운데 졸업생들이 그룹을 이뤄 다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영상 강의들을 편집해서 모아두는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구축해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조금씩 시도하며, 하루나 이틀 동안 특정 도시나 교회를 방문해서 펼쳐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JBS 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이런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팀원이 강해진 것입니다. 온라인 기술적인 부분에서 캐나다 밴쿠버의 황재훈 형제, 전체 코디네이션에서 캐나다 워터루의 최자연 형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이수민 사모 등의 합류로 전체 팀은 더 탄탄해졌습니다.



MORE THAN 10 CITIES



MORE THAN 100 PEOPLE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 의 심으
신 그 영광을 나
타낼 자라 일컬
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3



JBS 팀 토론 모습. 캐나다 워터루 공대 박사 과정에 있는 최자연 형제와 캐나다 밴쿠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황재훈 형제의 합류로 팀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Jubilee Entrepreneurship School



JES는 선교지에서 진행되는 1주일간의 BAM 창업 학교입니다. 지난해 JES는 여러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작년 3월 베트남을 홍보차 방문했던 백바울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현지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건지시고 한국으로 와서 회복 중이시지만, JES의 팀에서 일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JES의 리더십 팀에 유현석 형제와 장영희 자매가 함께 하게 함으로, 휘튼대학의 이민동교수님, 조샘 선교사와 함께 리더십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리더십 팀의 대부분 바뀌게 된 JES는 그 내용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 무슬림 지역에서만 진행되어왔던 JES가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와, 2015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각각 70여명이 모여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올해 2016년에도 이어져서, 중국 상하이에서 올해 6월말 제 6회 JES가 열리게 되며, 2016년 5월 현재 목표 학생등록수가 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두번째 변화는 JES 참석의 중심축이 선교사들로부터 학생들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베트남 JES에 참석했던 70여명의 학생들 중, 선교사와 목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8%인 반면 청년과 대학생의 비율은 56%였습니다. 이 흐름은 올해 상하이 JES에서도 전망되는 부분입니다.

세번째 변화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입니다. 하노이 한인교회의 태원수 담임목사님과 성도들의 도움으로, 늘어난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JES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JES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의 동역 가운데 진행됩니다. 또한 2015년의 경우, 창업학교 다음주에 BAM Exposure 라는 세미나를 베트남 호치민에서 3일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역시, 이미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사업가들이 이미 형성했던 모임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디아스포라 모임과의 협력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세가지 변화는, 모두 JES가 미래에 어떻게 가야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중심에서 점차 일반 평신도, 청년, 디아스포라들의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JES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은 다른 형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경우, 그동안의 JES의 경험을 통해서 선교학과 신학에서의 보강이 필요하고 후방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좀 더 장기적인 학교를 통한 공동체 형성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5년초부터 CBAM 차원에서 IBA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과 협의하였고, 그 결과물로 국내에 있는 다양한 해외선교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네오모라비안 하우스 Neo Moravian House (네모하우스)를 올해인 2016년 7월과 8월 4주간 서울에서 발족하게 됩니다. 이 창업학교의 프로그램 내용은 지난 수년 동안 진행했던 JES를 통해서 얻어진 교육경험과 인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네모하우스의 발족과 함께, 2012년 이슬람권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처음 발족되었던 JES는 이제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는 평신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현재 CBAM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미래의 선교는 더 이상 선교사와 비선교사, 선교지와 비선교지를 구분하지 않는 익명의 선교사 anonymous missionaries의 시대로 가고 있으며, 모든 크리스찬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요청됩니다.

다만,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 JES의 현재 멤버들이 좀더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배출된 졸업생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기존에 있는 BAM기업에서 훈련받거나 일하도록 연결하는 네트워킹의 작업이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라비안네트워크, 비즈니스 세계에서 다시 시작하다!”

라는 모토로 2016년 7월과 8월 기간 동안 서울 송실대학교에서 진행될 이 학교는, 한국 BAM 운동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선교단체 연합사업입니다. 그동안의 JES의 경험이 없었다면 생각할 수 없었던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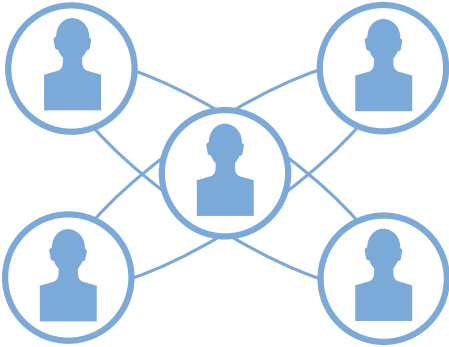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의 심으
신 그 영광을 나
타낼 자라 일컬
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3



지나해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모였던 제 4회 JES는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였을 뿐 아니라, 청년들이 가장 많았던 모임이었습니다. 한국 내의 청년실업, 선교사들의 노령화 현상 등등, 한국 크리스찬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야 하는 필요는 분명해보입니다.

Christian Resource Network



CRN은 전방과 후방을 연결하여 BAM 기업들을 돕는 네트워크 사역입니다. 지난 2015년 Center for BAM의 동역에서 가장 빛나고 약진이 두드러졌던 그룹은 CRN 팀입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실험적으로 프로젝트 팀이 형성되었던 이 그룹은 이제 하나의 상시 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포틀랜드 인텔 본사에서 일하는 강성범 박사, 인도 방갈로어의 최영준 선교사, UN 로마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민정원 자매, 뉴욕과 토론토에서 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는 송재희 자매와 백미정 자매로 구성된 CRN 팀은 그야말로 다국적 팀입니다. 예년에 비해 보강된 팀은 현재 한달에 한두번씩 인터넷을 회의를 하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 CRN 프로젝트는 지난해에도 미국, 베트남, 한국에서 진행되었지만, 지난해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웹진의 발간이었습니다. 선교지의 BAM 기업을 소개하고 그와 함께 후방에서 자기직업과 은사를 개발하고 있는 BAMer 들을 함께 소개하는 컨셉트로 운영되는 이 웹진은 저희들 CBAM 전체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5회를 발간한 웹진을 다음의 링크와 연결하십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enterforbam.com/news/>

앞으로 CRN 팀은 JBS와 JES의 졸업생 및 강사 네트워크와 더욱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CRN 프로젝트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오랜 비즈니스 경험을 한 사업가들이 신생 BAM 기업들을 코칭해주는 멘토링 서비스를 추가하고, 동시에 소셜 펀딩 기간인 The Bridge와의 연계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http://www.thebridgetogether.com>, BAM 기업들에 청년들을 인턴으로 보내는 인턴십 서비스 등등 다양한 사역들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http://www.centerforbam.com/news/>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 의 심으
신그 영광을 나
타날 자라 일컬
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3



CRN 팀의 애교발사! 가장 뒤늦게 형성되었지만, 가장 재미있고 활기찬 CRN 팀은 전방과 후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Ⅲ. 2016년 사역 우선 순위

저희가 작년에 발간했던 2014 Annual Report 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전략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CBAM의 구조 및 팀원 강화
- CBAM의 재정 구조 강화
- CBAM의 웹베이스 기초 놓기
- CBAM 교육의 follow-up 과 기존운동의 협력 강화

이 네가지 우선순위 가운데 첫번째와 세번째 우선순위는 잘 이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별히,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CBAM 멤버들의 공동체적 확인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Washington DC 수련회와 올해 2월 시카고 휘튼대학에서 두번째로 모였던 스택 모임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일할 기초는 확실히 놓여진 듯 합니다. 또, CBAM의 새로운 로고와 함께 새롭게 구축된 웹사이트는 현재 CBAM의 세가지 사역을 위해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두번째와 네번째의 우선 순위는 2015년 한해 동안 큰 진척이 없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의 노력부족이라기 보다는, 세웠던 우선순위들이 장기적인 방향성이기에 한번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네가지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리하여 다음의 세가지 우선순위로 만들어보았습니다.

1. 비전과 정체성의 확인 - 비즈니스 세계에서 새로운 세대를 세운다.

지난 한해는, 저희들 CBAM의 조직적 정체성이 전체 팀원들 가운데 공유하고 확인된 시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올 한해도 계속 이어져, 현재의 세계의 사역팀과 CBAM 운영팀 모두가 공동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그룹 정체성을 거듭 확인함에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하는 사역의 비전은, 전세계의 도시들 가운데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과 선교적 교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런 큰 흐름이 생겨나길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들을 생각합니다.

- 1년에 한번 모이는 스태프모임 외에, 각 팀별로의 오프라인 미팅을 격려하여, 공동의 비전을 기초로, 기존의 팀사역을 평가 강화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는 작업이 올해도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 Washington DC의 수련회를 자체적 행사에서 오픈 컨퍼런스 형식으로 전환해나갑니다.
- 다양한 도시들 가운데 진행되는 유사한 컨퍼런스를 지지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합니다. 기존에 함께 협력했던 IBA와의 협력은 계속되며, 동시에 호주 시드니 및 다른 도시에 열릴 BAM conference에 협력합니다.

2. 미션일 라이프의 유통! Content distributor로서의 자리매김

그동안 저희 사역은 JBS와 JES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자료만들기 content making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심 가운데 선교적 삶 Missional Life에 관한 자료는 저희들 말고도 많은 단체들과 모임들과 사역자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이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할 것은 기존의 영상자료들과 글들을 모으고 편집하고 인터넷 상에서 보급하는 자료의 편집 및 유통 content edition and distribution 일 것이라고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편집 및 배포팀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현재 스태프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이미 할 수 있는 이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기존 업무를 재분배함으로써 자료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 JBS와 JES를 졸업한 약 500여명의 졸업생들과의 연계를 시작으로 SNS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료유통을 시작합니다.

3. 내부 역량 강화

현재의 각 사역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인력과 재정이 안정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Annual report의 계획 중 하나는, 장기적으로 유급 스태프를 고용하기 위해서 재정후원자들을 늘려나가는 방향이었지만, 이 부분에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2015년의 총 수입과 지출은 각각 \$52,771.63과 \$55,859.58으로 작년도에 계획했던 예산규모였던 \$63,635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보고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필요한 재정은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으며, 그동안 재정후원을 하셨던 분들과 교회들과의 관계도 변함없이 꾸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역이 계속 확장해나감에 따라 후원자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보강이 올해 동안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하는 사역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작음에는 상당수의 경비가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CBAM의 핵심가치 중의 하나인 자원봉사주의는 계속 유지해야하지만, 동시에 후원자를 늘림으로 현재 스태프들의 시간과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이사들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 이사들과의 동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력도 지난 한해 동안 꾸준히 연결되었고 각 팀에는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동안의 사역확장을 생각할 때, 팀별 인력 보강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2007년 여름 아무 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작은 모임이 10년을 맞아가며 규모를 갖춰가는 모습을 보며, 이 일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성령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진들과의 협력 가운데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킨다.
- 각 팀의 사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인력을 확보하고 내부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다.

지난 한해도 여러분들과의 동역이 있었기에 이상의 사역들이 가능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동행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동역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온전히 모든 것을 확신합니다! (빌립보 1:6).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온전히 모든 것을 확신합니다!

(빌립보 1:6)



IV. 재정보고

1. 2015년 결산

수입/지출	Team	사역내용	금액 (US \$)	합	
수입	CBAM	여름 수련회	\$4,709.00	\$10,309.00	
		정기후원	\$5,600.00		
	JBS	등록비	\$2,457.38	\$2,457.38	
	JES	등록비	\$20,855.02	\$40,005.25	
		후원	\$19,150.23		
총수입				\$52,771.63	
지출	CBAM	2월 스태프 미팅	\$704.54	\$20,129.35	
		리더 교통비	\$2,792.52		
		여름 수련회 비용	\$9,064.20		
		웹구축비 및 행정	\$7,568.09		
	JBS	JBS 리뷰	\$1,422.51	\$1,468.84	
		JBS 웹비용	\$46.33		
	JES	강사 및 스태프 지원비	\$9,588.10	\$33,891.39	
		호텔비용	\$15,790.45		
		JES 기념품	\$1,300.00		
	CRN	CRN project	행정 및 교육비용	\$7,212.84	
				\$370.00	\$370.00
총비용				\$55,859.58	

2015

Note: 저희들이 2015년 1월 1일 시작할 때의 현금 잔고는 \$14,240.64였으며, 12월 31일의 잔고는 \$11,152.69였습니다. 올해 재정의 감소는 CBAM의 웹을 구축함에 \$7,000이 넘는 금액이 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이고, 수입면에서는 JBS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학생을 모집하지 않아서 등록비 수입 감소가 컸기 때문입니다.

2. 2016 년 예산

올해부터 예산 회기 연도를 5월로 시작하는 것을 실험해보려고 합니다. 이는 저희들의 이사회가 보통 4월말과 5월초에 있는 것을 감안하기 위함입니다.

수입/지출	Team	사역항목	금액 (US \$)	합	
수입	CBAM	정기후원	\$10,000.00	\$18,000.00	
		여름 수련회 (100명)	\$8,000.00		
	JBS	JBS 등록비 (200명)	\$10,000.00	\$10,000.00	
	JES	JES 등록비 (50명)	\$19,500.00	\$33,500.00	
		JES 후원비	\$14,000.00		
	CRN	재능기부 Project	\$750.00	\$750.00	
총수입			\$62,250.00	\$62,250.00	
지출	CBAM	여름 수련회	\$12,000.00	\$20,000.00	
		스탯 모임 경비	\$2,000.00		
		웹 운영 및 개발	\$3,000.00		
		Director 경비	\$3,000.00		
	JBS	팀미팅	\$1,000.00	\$3,500.00	
		JBS 교육개발	\$1,500.00		
		JBS 아웃리치	\$1,000.00		
	JES	팀미팅	\$1,000.00	\$31,000.00	
		강사 및 스탯 지원	\$10,000.00		
		호텔비용 및 행정비용	\$20,000.00		
	CRN	팀미팅	\$1,000.00	\$3,500.00	
		재능기부프로젝트	\$1,500.00		
		홍보 및 네트워킹	\$1,000.00		
	예비비			\$4,250.00	\$4,250.00
	총비용			\$62,250.00	\$62,250.00

Note: 전체 예산이 작년 비용에 비해서 11%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증가분은 정기후원자의 증가와 JBS 수강생의 증가를 목표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증가분은 일단 각 팀미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증가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팀웍을 다지는데 사용됩니다. 또, CBAM 전체 차원에서는 교육 내용을 편집하고 보급하는데 재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7%를 차지함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016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ANNUAL REPORT 2015



WWW.CENTERFORBAM.COM